

도움동기, 도움행동의지, 긍정성을 촉진하는 근거제시의 힘

이 지 연

장 형 심[†]

한양대학교

개인의 도움행동의지는 자율적으로 발현될 때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도움행동의지는 타율적 또는 통제적으로 발현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 기법을 도입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 한 근거제시를 통해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의지, 긍정정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참가자들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배당 한 후, 처치집단에는 도움행동과 관련된 합당한 근거제시(providing a rationale) 지문을 제공하고 통제집단에는 상기의 근거제시 지문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비연구를 통해 실험처치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근거제시 지문은 본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자율적 도움동기(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종속변인으로는 도움행동참여의지(willingness to help) 및 긍정정서(positive affect)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를 활성화시켰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발적·자율적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개인의 긍정정서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거제시가 친사회성 육성에 관심을 둔 다양한 사회·교육적 장면에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는 학업성취 맥락에서의 근거제시를 통한 동기, 학습관여, 개념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Jang, 2008)를 확장하여, 친사회성 발달 맥락에서도 근거제시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근거제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고, 다양한 맥락에서의 근거제시를 통한 동기매개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근거제시,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

[†] 교신저자: 장형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Email: janghs@hanyang.ac.kr

서론

도움주기, 공유하기, 기부하기, 협력하기, 자원하기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타인이나 사회 전반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Eisenberg & Fabes, 1998; Dovidio, Pilliavin, Schroeder, & Penner, 2006, Mussen & Eisenberg-Berg, 1977; Nelson, Della Porta, Jacobs Bao, Lee, Choi & Lyubomirsky, 2015).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친사회적 행동의 예시로는 규칙 준수하기, 기부, 봉사활동, 낯선 이를 도와주기(예: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기, 떨어진 물건 주워주기), 어떤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기(예: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돕기, 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기), 응원·격려·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 감정적인 도움의 제공(예: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나누기), 긴급 상황 시 필요한 도움의 제공(예: 병원 응급실로 누군가를 데려가는 일) 등의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Mussen & Eisenberg-Berg, 1977). 이를 정리하면, 친사회적 행동은 광의적으로는 타인이나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사회적 행위이자, 협의적으로는 타인이나 사회 전반의 복지를 위해 유의미하거나 유용한 자신의 무엇인가를 기부하거나 나누거나 희생하는 행위를 종합한다고 볼 수 있다(Underwood & Moore, 1982).

친사회성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 및 행동의 발달은 가정 및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인성 또는 사회성 발달의 육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친사회성 인식의 고취와 친사회적 행동의 육성은 공동체를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이끌기에, 이는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Pavey, Greitemeyer, & Sparks, 2012).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는 성적 우선주의 및 경쟁 중심으로 돌아가며 이를 관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이기심, 소외문제, 학교폭력의 급격한 증가 등이 표

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나눔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한 친사회성 육성 방안을 대두시켰다(김동일, 김미옥, 2015). 이러한 접근의 취지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하는 동시에, 삶의 보람을 경험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를 익히고 함양하기를 바라는 교육적 기대에 기반 한 교육정책적 시도의 일환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박정희, 김민, 2007). 봉사활동 장려와 같은 친사회성 함양을 위한 접근은 봉사활동 참여 비율을 높이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도치 않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수반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어느 순간부터 보상이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 접근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다소 멀어지는 측면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박정희, 김민, 2007; 이시왕, 1999; 이해연, 1997; Newman, Milton, & Stroud, 1985; Krehbiel & Mackay, 1988; Sobus, 1995; Weinstein & Ryan, 2010).

국·내외의 학생봉사활동 현황 보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들은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봉사활동 참여 시 인센티브나 점수와 같은 보상을 제공하거나 봉사활동 불이행시 벌점을 부과하는 행동주의적 접근을 채택하는 성향을 보인다(박정희, 김민, 2007; 이시왕, 1999; 이해연, 1997; Newman et al., 1985; Krehbiel et al., 1995; Weinstein & Ryan, 2010).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봉사활동 참여 시 인센티브나 보상을 부여하거나 봉사활동 불이행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기반을 둔 다수의 봉사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친사회성 발달이라는 가치 기반에서가 아닌 점수 획득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 근간은 궁극적으로 봉사활동 또는 도움행동 참여 자체를 점수라는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지각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숨겨진 부작용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이다(Weinstein & Ryan, 2010).

자기결정성 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들(Self-determination theory: SDT, 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에서 이러한 현상을 다룬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인센티브를 받거나 보상(예: 봉사활동 점수) 또는 처벌(예: 벌점,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즉, “결과”에 초점을 둔 개인의 행위 기반에는 치명적인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보상이나 처벌이라는 환경적 자극의 부재 하에서는 개인이 굳이 봉사활동이라는 목표 행동을 지속해야 할 기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목표 행동의 소멸을 이끌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떤 행동에 대한 근거 또는 행동의 원인의 소재(locus of causality)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시작되었을 때, 주로 관찰된다(Ryan & Deci, 2000).

진정한 친사회적 행동은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성에 기인되도록 육성되어야 함은 친사회성 육성의 기본 근간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환경이나 외부에서 부여하는 점수나 인센티브에 의존하여 육성된다면, 친사회적 행동의 활성화는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거와 동시에 소멸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진정한 친사회성 육성의 목적이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양산한다.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목표 행동에 참여해야 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실행될 때, 개인의 친사회성은 보상이나 처벌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성화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 때, 자율적인 친사회적 행동은 비단 도움을 받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 행동을 제공하는 수여자의 경험 및 정서까지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하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의 동기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이 얼마나 자율적(autonomous)이며 의지적(volitional)인가에 따라 동기, 수행, 적응력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자율성(autonomy)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기결정성, 즉 자율성이란 개인이 행동의 개시와 운영에 있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의 방향을 이끌고 행동에 대한 승인(예: 내가 진실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동이다)을 경험하려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종속되거나 강제되거나 통제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운영하려는 심리적 욕구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Gagné, 2003; Ryan, & Deci, 2000; Weinstein & Ryan, 2010).

자율성의 경험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어떤 일을 선호하거나, 또는 그 행동에 가치나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 원해서 하게 될 때 주로 활성화 된다. 이때 개인은 자율적으로 동기화 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외부의 압력(예: 강요, 압박감, 보상, 처벌 등)에 의해 행동이 개시되거나 운영될 때, 즉 어떤 행동이 강제적이거나 통제적으로 개시되거나 방향성을 지닐 때 개인은 자기결정적일 수 없다. 이때 개인은 통제적으로 동기화 된다고 말한다(Ryan, & Deci, 2000).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는 자기결정성 수준의 높낮이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자율적 동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율적 동기는 내재적 흥미나 중요성, 가치의 승인에 의해 동기화된 자율적 동기는 내재적 조절(예: 흥미와 호기심에 의해 동기화된 조절)과 동일시조절(예: 중요하고 가치롭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기화된 조절)을 포함한다(Ryan, & Deci, 2000).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은 목표 활동에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며 목표 활동이 제공하는 도전과 흥미에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조절이다. 동일시조

절(identified regulation)은 목표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목표 행동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목표 행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절이다(Weinstein & Ryan, 2010). 따라서 자율적 동기는 종합적으로 호기심, 흥미, 중요성 가치의 승인에 의해 활성화된 동기를 지칭한다. 예시적으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자율적 동기가 높은 개인은 학습을 할 때에도 단순 암기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념적 이해에 집중하고(Jang, 2008; Reeve, Jang, Hardre, & Omura, 2002; Vansteenkiste, Simons, Lens, Soenens, & Matos, 2005), 학교 및 사회 부적응 문제를 덜 경험하며(Grolnick, Benjet, Kurowski, & Apostoleris, 1997), 학습 활동 참여 시 더욱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건설적인 동기 및 행동양식을 보고한다(Jang, Reeve, & Deci, 2010).

낮은 자기결정성 수준을 보이는 통제적 동기는 내사조절(예: 투사된 의무감과 압박감에 의해 동기화된 조절)과 외적조절(예: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 조절)을 포함한다. 외적조절(external regulation)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외적 요구를 충족(예: 보상 또는 처벌의 회피)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내사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민감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예: 봉사활동 또는 도움행동)을 수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보상(예: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의식)이나 환경이 요구하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수반되는 정서적 비난(예: 수치심과 죄책감)에 의거한 조절이다(Ryan & Deci, 2000).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통제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일종의 심리적 불편함, 압박감, 또는 스트레스를 수반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회피할 만큼만 관여하는 등의 동기 수준과 행동양식을 보여줌을 보고한다(Kohn, 1993; 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

정리하면, 흥미, 호기심, 중요성, 가치, 의미에

의해 승인되고 조절된 동기는 자기결정성이 높기에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로 구분되고, 압박감이나 의무감 그리고 보상을 얻거나 죄책감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절된 동기는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구분된다(Ryan & Deci, 2000).

자율적 도움동기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이 목표행동을 할 때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또는 통제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여부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동기 경험이 자율적인가 통제적인가에 따라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질적 수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Gottfried, 1985; Grolnick & Ryan, 1987; Ryan & Connell, 1989; Vallerand & Blssonnette, 1992).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높은 자기결정성 수준은 직업, 종교, 교육, 자아 및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자기 실현, 자존감,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됨을 보여준다(Deci & Ryan, 1985; Gagné, 2003; Koestner, Bernieri, & Zuckerman, 1992;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Pavey et al, 2012; Ryan & Connell, 1989; Ryan, Rigby, & King, 1993; Weinstein & Ryan, 2010). 반면에 높은 통제적 동기는 외적 보상의 여부, 사회적 기대치, 사회적 관심(예: 타인을 기쁘게 하기) 등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이끌고 환경적 요소(예: 급여, 사회적 승인, 성과 등)를 압박 또는 압력으로 지각하기에 수행에 있어 호기심이나 흥미 그리고 활력과 같은 긍정정서의 경험을 저조하게 경험함을 보여준다(Assor, Vansteenkiste, & Kaplan, 2009; Soenens & Vansteenkiste, 2010; Jang, Reeve, Ryan, & Kim, 2009).

상기의 구조에 의하면, 도움행동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나 인정을 받기위해서 또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발현될 때 이는 통제적 도움행동(controlled helping behavior)이라는 분류가 가능하

다. 그렇다면, 도움행동의 질적 수준도 도움행동 참여의지가 어떤 동기적 성향(자율적 vs. 통제적)을 내포하는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통제적 동기에 의해 발현된 친사회적 행동은 참여 행동에 대한 순수한 몰입이나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고, 봉사활동에 대한 본인의 통합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낮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참여행동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제시한다(Batson, Coke, Jasnoski, & Hanson, 1978; Finkelstein, Penner, & Brannick, 2005; Weinstein & Ryan, 2010).

통제적 도움동기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도움동기형성에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해보면, 자율적 성향의 도움동기는 동일시조절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동일시조절은 개인이 목표행동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 했을 때 발현되는 동기 상태이다. 자신 스스로가 목표행동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동일시 조절은 자율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움 제공이 그 행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기반한 순수한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 때 자율적 도움동기(autonomous helping motivation)는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적 도움동기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시 조절에 기반한 친사회적 행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고취가 필수적일 것이다.

자율적 도움동기를 촉진하는 합당한 근거 제시

자율적 도움동기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접근 방안이 적용 가능하다. 자율성지지는 개인이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고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이들의 선택을 인정

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양식을 포함한다(Deci, Schwartz, Sheinman, & Ryan, 1981; Jang et al., 2010). 자율성지지 환경에서는 자율적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강압적이고 통제적인(controlling) 언어가 아닌 정보적(informative)이고 순화적인 언어가 사용된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지지적 환경이 제공하는 수많은 장점들 중에서도 특히 자기결정성 즉, 자율성의 활성화에 주목한다(Baard, Deci, & Ryan, 2004; Reeve & Jang, 2006; Ryan & Grolnick, 1986). 자율성의 활성화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참여를 육성한다. 즉, 자율성지지적 환경 속에서 기능하는 개인은 목표활동 수행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Jang et al., 2010;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Reeve, Jang, Carrell, Jeon, & Barch, 2004).

본 연구의 초점인 자율적 도움동기의 형성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자율성지지 전략 중에서도 특히 목표행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하게 돕는 근거제시가 무엇보다 자율적 도움동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Deci, Eghrari, Patrick, Leone, 1994; Jang, 2008). 합당한 근거제시(a rationale, a reason to do)는 목표 활동의 (숨겨진) 가치나 의미 또는 중요성을 소통함으로써 목표 활동에 대한 참된 가치나 유용성을 자발적으로 수용케 하는 일종의 설명 제시방법이다(Jang, 2008). 선행연구들은 합당한 근거를 제공받은 개인이 목표 활동의 숨겨진 가치, 의미,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할 때 동일시 조절을 통한 내면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 비록 목표 활동이 초기에는 크게 개인적 관심이나 흥미를 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근거를 제공받게 되고 개인이 이러한 근거에 설득될 때, 목표 활동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모되어 새롭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활동이라도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심리적 변화의 경험이 자율적 동기를 활성화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 이를 뒷받침하듯,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근거제시를 통한 자율적 동기의 활성화 과정을 확인해 준다(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 예를 들어, 근거제시(providing a rationale)의 효과와 관련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때, 개인은 부정적 정서 및 통제적 동기 성향을 보임을 관찰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목표 활동의 중요성과 숨겨진 가치를 지각하도록 돕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정보적이고도 순화적인 언어로 제시될 때, 이를 수용한 실험참가자들의 목표활동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즉, 목표 활동에 능동적으로 관여할만한 합당한 가치와 이유를 제공 받고 설득된 처지집단의 참가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통제집단의 참가자들보다 결과적으로 목표 활동 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했고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심지어는 더 높은 개념적 이해를 획득했다(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

관련 선행연구결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동일시 조절의 활성화는 자율적 도움행동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사회적·교육적 맥락에서의 자율적 도움동기를 촉진에는 압박감을 주는 통제적인 언어 보다는 가치 전달 접근의 정보적 언어(informational language)로 봉사활동이나 도움행동 자체에 담겨진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을 타당하게 드러내고 대상으로 하여금 목표 행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 자율적 도움동기가 일단 형성된 후에는 개인의 도움행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율적으로 형성된 도움동기는 도움의지의 고취뿐만 아니라 개인의 긍정적 정서 경험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도 자기결정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 전략으로 합당한 근거제시를 연구의 중요

선행변인으로 두었다.

긍정정서와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복지와 이익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행위로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대상을 도우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 속에서 관찰되는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은 학자들에 따라 종종 이타행동(altruism)과 혼용되며 사용되곤 한다. 이타행동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인 보상을 넘어서 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타인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까지도 돌보려는 행동을 포함한다(Batson & Shaw, 1991). Berkowitz(1972)는 이타행동이란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무관하게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이며, 결국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도움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과 이타행동을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도움행동들은 최근까지도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대상이 주혜택을 누리는 행동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비교적 근래의 도움행동과 관련된 연구(Weinstein & Ryan, 2010)는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도움행동의 발현은 결과적으로 도움 받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행동을 하는 행위자 역시 긍정적 정서 경험과 같은 심리적 혜택을 누린다는 상보적 결과를 제안한다. 긍정정서(positive affect)는 열정적이고 활기찬 긍정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Ekman & Davidson, 1994). 선행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안녕과 관련된 유익한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 정서를 느낄 때 높은 수준의 에너지, 집중력, 즐거움, 삶의 만족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자기결정성 이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는 긍정정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일례로 개인

은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왔을 때 스스로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발견된다(Nelson et al., 2015; Pavey et al., 2012; Weinstein & Ryan, 2010). 개인적 이득이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각한 개인은 도움행동 자체가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에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율적 도움동기 활성화의 잠재적 장점인 도움행동 참여의지의 고취와 긍정정서의 수반은 통제적 도움동기의 잠재적 폐해와 대조해볼 때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자율적 도움동기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맥락에서 주목하고 육성할 만한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당한 근거제공이 도움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도움행동의 장점과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도울 때, 과연 도움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 상태가 활성화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 동기 상태의 활성화가 개인의 도움행동의지를 고취시키며 개인의 긍정정서 경험 또한 가능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험연구 기법을 통해 본 연구가 상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및 가설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압박이나 칭찬, 보상, 처벌과 같은 행동주의적 접근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고취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동의를 획득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Weinstein & Ryan, 2010).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식의 고취와 승인은 친사회적 행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근거제시 소통 방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성 행동의 일

환인 도움행동에 초점을 두고 인센티브나 보상을 굳이 유관하지 않아도 도움행동의 중요성과 장점을 소통하는 근거제시만으로도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가 도움행동의지와 더불어 긍정정서까지도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가 도움행동 근거제시의 효과성 및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해주는 지 관찰 하였다. 이를 위해, 도움행동의 숨겨진 가치를 보여주는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를 이끌고, 이는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를 예측한다는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설계와 연구모형 및 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1) 처치집단(a rationale group)과 통제집단(no rationale group)을 무선배당하고, 이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2) 근거제시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가설모형인 자율적 도움동기 매개모형(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mediation model)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자율적 도움동기 매개모형은 관련 선행연구인 Jang (2008)의 인지적 학습에서의 동기매개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였다. Jang(2008)의 동기매개모형은 근거제공→자율적 동기→학습관여→개념학습의 과정을 보여준다. Jang(2008)의 연구는 대학 인문계 학생들이 대체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통계학습이라는 활동을 연구활동으로 설정하고 근거제공이 주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Jang(2008)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인문계열 대학생들이 왜 통계학습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장점을 자율성지지적으로 제공하는 근거제시 실험처치로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처치 집단의 참여자들은 통제집단의 참여자들보다 자율적 동기, 학습관여, 개념적 이해로 측정된 종속변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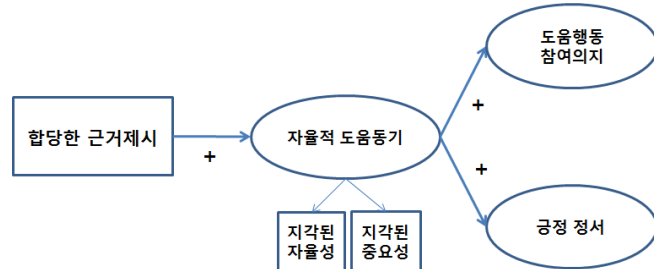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의 자율성, 학습관여, 개념적 학습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Jang, 2008).

본 연구는 상기 기술한 Jang(2008)의 연구를 확장하여 합당한 근거제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적 동기가 과연 친사회적 행동 영역에서도 자율적 도움동기의 활성화로 발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 예견되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근거제시 조건에 따라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 참여의지, 긍정정서는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근거제시 처치집단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의 참가자들 보다 도움행동에 대한 자율적 도움동기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근거제시 처치집단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의 참가자들 보다 도움행동에 대한 도움행동참여의지를 높게 보여 줄 것이다.

가설 1-3. 근거제시 처치집단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의 참가자들 보다 도움행동에 대한 긍정정서를 높게 보여 줄 것이다.

연구문제 2.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자율적 도움동기는 근거제시가 도움행동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자율적 도움동기는 근거제시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예비연구: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Nelson et al., 2015)를 통해 선정된 근거제시 실험처치가 도움행동에 대한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실험활동이 도움행동의 이해에 적합한지, 실험활동에 사용한 지문의 길이와 분배한 시간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68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성별은 남자 24명(35.3%), 여자 44명(64.7%)이었다. 참가자들은 2분 동안 실험에 참여하는 방식과 시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3분 동안 무선 할당된 처치(처치집단: 근거제시 존재 vs. 통제집단: 근거제시 부재)에 따라 실험참가자들은 개인에게 제시된 서술문을 읽었다. 서술문을 읽고 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5분 동안 동일한 내용의 도움행동과 관련된 지문(1 페이지: 733자)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활동 후 설문에 응

답하였다. 실험 소요 시간은 총 25분이었으며, 각 집단은 동일하게 34명씩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근거제시(providing a rationale)

근거제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Nelson et al., 2015), 도움행동에 대한 의의, 가치, 유익성, 중요성 등을 전달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자율적 도움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움행동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움행동에 대한 근거제시의 내용 및 방법은 선행연구를 따라 자율성지지적 접근 방식에 맞추어 정보제공적이고 순화적인 언어로 제시되었다.

근거제시문 제작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단계 1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근거제시를 번역한

후, Jang(2008)에서 설명하는 자율적 도움동기가 활성화 가능한 조건을 고려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활성화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비통제적이며, 정보 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으며(예: 수많은 연구들은 크고 작은 도움 행동을 매일 단 한번이라도 베푼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답니다.), 2) 자율적 선택을 촉진하며(예: 당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부정적 정서 표현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며(예: 매일 단 한 번이라도 크고 작은 도움 행동을 베푸는 것이 좀 어렵거나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4) 숨겨진 가치를 보여주는 도움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예: 도움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답니다.)하였다.

표 1. 근거제시 조작 조건

구분	내용
도입	우리 모두는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곤 합니다. 크고 작은 도움 행동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때때로 우리는 무심코 도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예: 부모님의 식사 준비를 자발적으로 돕기, 무거운 짐 함께 들어주기, 형제·자매를 배려하기, 친구가 어려워하는 과제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등)
근거 1) 정보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도움 행동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연구들은 크고 작은 도움 행동을 매일 단 한번이라도 베푼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답니다(예: 실제로 6주 동안 하루에 다섯 번 도움 행동을 한 사람들을 관찰할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근거 2) 가치, 중요성	참. 그런데 말이죠. 도움 행동은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연구에 의하며, 다른 사람이 도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관찰한 사람도 타인을 도와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네요. 도움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답니다. (예: 도움 행동은 감사한 마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율적 선택 촉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은 집, 학교, 또는 다른 곳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 표현을 인정, 수용	매일 단 한번이라도 크고 작은 도움 행동을 베푸는 것이 좀 어렵거나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도 하루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익숙해 질 거예요.

근거제시 초안이 적절히 구조화되었는지를 교육심리전문가 및 해당 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다. 검토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근거제시 조건의 내용이 적절한지, 가독성이 있는지 등을 개별 분석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심층 분석하였다. 이후 지시문의 의미 전달과 단어 사용, 문법 등을 중심으로 근거제시를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근거제시문을 수정한 후,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근거제시가 도움행동에 대한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활동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예비연구를 통해 참가자에게 표현이 모호하거나 단어가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연구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문 읽기 활동(Activity)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문 읽기 활동은 대학 학부생들이 사회심리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 동기,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1 페이지, 612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문 읽기 활동은 실험처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5분 동안 실시되었다. 예비연구를 통해 5분 동안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활동 시간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예비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근거제시 조건에 사용된 지시문은 도움행동에 대한 유용성과 가치를 5.95($SD = .56$), 도움행동에 대한 중요도를 5.44($SD = 1.31$), 활동 내용의 길이에 대한 적절성을 6.22($SD = .62$), 활동 시간에 대한 적절성을 6.13($SD = .56$)으로 평정되었다. 반면에 통제 자극으로 사용된 지시문은 도움행동에 대한 유용성과 가치를 5.57($SD = .59$), 중요도를 4.44($SD = .95$), 활동 내용의 길이에 대한 적절성을 3.03($SD = .43$), 활동 시간에 대한 적절성을 4.92($SD = .82$)로 평정되었다(1-7 Likert 척도, 표 2 참조).

본연구: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및 절차

본연구는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총 131명(남자 32.8%, 여자 67.2%)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0.82세(19-26세)이었다. 본연구는 근거제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거제시 처치 조건에 따라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 참여의지, 긍정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거제시를 처치로 사용하여 두 집단(처치집단: 근거제시 존재 vs. 통제집단)

표 2. 근거제시 지시문에 대한 평정치

변인	근거제시 지시문	통제자극	t
1. 도움행동에 대한 유용성	5.95(.56)	5.57(.59)	3.041*
2. 도움행동에 대한 중요도	5.44(1.31)	4.44(.95)	3.524*
3. 활동 내용의 길이에 대한 적절성	6.22(.62)	3.03(.43)	29.952***
4. 활동 시간에 대한 적절성	6.13(.56)	4.92(.82)	6.801***

* $p < .05$, *** $p < .001$, 범위 1-7점

단: 근거제시 부재)을 설정하고, 예비연구와 동일한 실험 진행 절차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본연구는 예비연구에서 검증한 근거제시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문 읽기 활동(activity)을 기반으로 예비연구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되었으며, 근거제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를 함께 측정하였다.

자율적 도움동기(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자율적 도움동기는 Jang(2008)의 연구에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적 도움동기는 지각된 자율성과 지각된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사후 질문지에 제시되었으며, “오늘의 도움행동 관련 활동 경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지시문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였다. 지각된 자율성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지각된 인과소재(3문항, “얼마만큼 활동에 참여하는 가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느꼈다.”)와 외부적으로 지각된 인과소재(3문항, “해야만 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적으로 지각된 인과소재는 역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77로 나타났다. 지각된 중요성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가치, 의미, 중요성을 지각하게 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지각된 중요성에 대한 문항도 사후 질문지에 제시되었으며, “도움행동과 관련된 활동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것 같다.”가 대표적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중요성이 높은 것을 반영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도움행동참여의지(Willingness to Help)

도움행동 유형에 따라 개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도움행동참여의지는 10가지의 도움행동에 대한 유형(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헌혈하기, 재능기부하기 등)을 제시하고, 유형에 따라 자신이 참여해보고 싶은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Gagné, 2003). 점수의 범위는 1-7점이었으며, 10개의 도움행동참여의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는 7점에 가까울수록 도움행동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Positive Affect)

긍정정서의 측정에는 Watson 등(1988)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긍정정서는 10문항(예: 활기찬, 기분 좋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정서 유형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7점이었으며, 10개의 정서 상태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는 7점에 가까울수록 기분이 좋고 정서 상태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에 대한 지원 방식(근거제시)을 조작한 집단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따른 종속변인들 간의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독립표집을 실시하여 동일분산 가정을 통해 단측검정(one-tailed tes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첫째, 근거제시가 종속변인들을 촉진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대립가설 부등호를 사용하여 처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크지 또는 작음을 단측검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촉진하고, 예측된 자율적 도움동기가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를 활성화하는지를

동기매개모형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처치의 효과

근거제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자율성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처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M_s , 6.40 vs 3.02, $t(129)=49.887$, $p < .001$). 다음으로 지각된 중요성도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처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M_s , 6.36 vs 3.23, $t(129)=49.671$, $p < .001$). 이에 따라, 근거제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도움행동에 대한 자율적 도움동기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둘째, 도움행동참여의지도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처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M_s , 6.10 vs 3.00, $t(129)=35.637$, $p < .05$). 이 결과를 반영

하여, 근거제시 처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도움행동참여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정서는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처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M_s , 6.13 vs 3.03, $t(129)=34.388$, $p < .001$). 이 결과를 반영하여, 근거제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내,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근거제시와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처치집단의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지각된 자율성은 지각된 중요성과 .50($p < .01$), 도움행동참여의지와 .33($p < .01$), 긍정정서와 .25($p < .05$)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지각된 중요성은 도움행동참여의지와 .35($p < .01$), 긍정정서와 .32($p < .01$)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도움행동참여의지는 긍정정서와 .27($p < .05$)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표 4 참조).

통제집단의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지각된 자율성은 지각된 중요성과 정적 상관($r = .41$, $p < .01$)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자율성과 도

표 3. 근거제시 조작 조건에 따른 실험집단 간 차이

종속변인	실험집단		t
	처치집단 (근거제시)	통제집단 (근거제시 없음)	
1. 지각된 자율성	6.40(.29)	3.02(.47)	49.887***
2. 지각된 중요성	6.36(.31)	3.23(.40)	49.671***
3. 도움행동참여의지	6.10(.51)	3.00(.49)	35.637*
4. 긍정정서	6.13(.59)	3.03(.43)	34.388***

표 4. 실험집단의 근거제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처치집단(N=65)	M	SD	1	2	3	4
1. 지각된 자율성	6.40	.29	1	.50**	.33**	.25*
2. 지각된 중요성	6.35	.31		1	.35**	.32**
3. 도움행동참여의지	6.10	.51			1	.27*
4. 긍정정서	6.13	.59				1

표 5. 통제집단의 근거제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통제집단(N=66)	M	SD	1	2	3	4
1. 지각된 자율성	3.02	.47	1	.41**	-.04	-.28
2. 지각된 중요성	3.23	.40		1	-.06	.30
3. 도움행동참여의지	2.99	.49			1	.19
4. 긍정정서	3.03	.43				1

표 6. Fisher's Z 분석 결과

통제집단(N=66)	1	2	3	4
1. 지각된 자율성	1	.64*	2.14*	3.04*
2. 지각된 중요성		1	2.38*	0.12*
3. 도움행동참여의지			1	0.47*
4. 긍정정서				1

* $p < .05$, ** $p < .01$ (one-tailed), 범위 1-7점

움행동참여의지($r = -.04, n.s$)와 긍정정서($r = -.28, n.s$)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각된 중요성도 도움행동참여의지($r = -.06, n.s$) 및 긍정정서($r = .30, n.s$)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긍정정서($r = .19, n.s$)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참조).

Fisher's Z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상관관계 효과성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변인의 Z값이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연구모형 분석

근거제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모

형(동기매개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직접 및 간접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자율적 도움동기는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χ^2 , RMSEA, TLI, CFI, IFI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chi^2(392.95, p = .000)$, RMSEA(.057)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TLI(.917), CFI(.935), IFI(.923)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 값들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양호한 수준의 값과 범위(Browne & Cudeck, 1993)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자료 적합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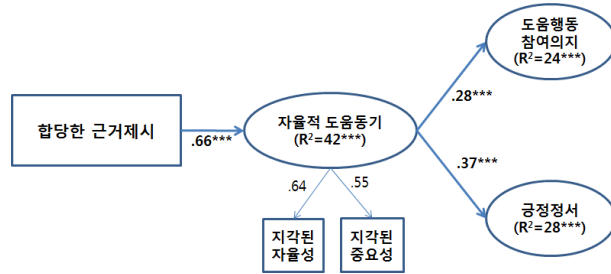


그림 2. 근거제시 동기매개 모형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IFI	RMSEA (90% 신뢰구간)	TLI
연구모형	392.95	229	.000	.935	.923	.057 (.039-.062)	.917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동기매개 모형이 확인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거제시, 자율적 도움동기, 도움행동참여의지, 긍정정서 간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2를 검증하였다.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에 정적인 영향($\beta=.66, p<.000$)을 미쳤고, 예측된 자율적 도움동기는 도움행동참여의지($\beta=.28, p<.000$), 긍정정서($\beta=.37, p<.000$)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체 연구모형은 자율적 도움동기의 42%($R^2=.42$), 도움행동참여의지 24%($R^2=.24$), 긍정정서의 28%($R^2=.28$)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를 매개로 도움행동 참여의지 및 긍정정서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 2-2를 채택하였다.

근거제시와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에 대한 직접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움행동참여의지에 대한 근거제시의 경로계수(β)는 .412($n.s$), 긍정정서에 대한 근거제시의 경로계수(β)는 .341($n.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거제시는 자율적 도움동기를 통해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제시와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자율적 도움동기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도움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2000번을 실시하고 BC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매개로 도움행동참여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긍정정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BC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도움행동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근거제시의 효과 및 의미, 그리고 각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의 도움행동의 숨겨진 가치를 보여주는 근거제시가 (1) 자율적 도움동기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긍정정

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2) 연구가설모형인 동기매개 모형을 통해서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를 예측하는지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율적 도움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도움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처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행동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도움행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각하게 하며, 도움행동에 대한 참여의지와 긍정정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근거제시가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긍정정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율적 도움동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촉진하고, 자율적 도움동기가 차례로 도움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긍정정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율적 도움동기가 근거제시와 도움행동참여의지 및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풍성한 반면,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유형이기도 한 일상에서의 도움행동 촉진을 위한 전략이나 대안적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Gagné, 2003; Grant & Ashford, 2008),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 관련 기존의 연구를 실험 연구를 통해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모형인 자율적 도움동기 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그동안 도움행동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근거제시가 자율적 도움동기를 통해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연구의 다양성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여가 됨을 주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근거제시에 의해 예측된 자율적 도움동기가 도움행동참여의지와 긍정정서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도움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선행연구(Jang, 2008)를 확장하여 개인의 행동을 학습장면이 아닌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근거제시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근거제시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행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동기를 활성화 한다는 학습 맥락의 기반의 선행연구들(Deci et al., 1994; Jang, 2008; Reeve et al., 2002)의 결과들을 확장하여, 근거제시의 효과가 친사회적 행동 맥락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 실험연구설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짚어본다. 본 연구는 자율성지지 방식의 근거제시가 일상에서의 도움행동을 촉진한다는 Nelson 등(2015)의 설문기반 연구, 그리고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여가 긍정정서가 높아진다는 Pavey 등(2012)의 설문기반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과 도움행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친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

적 함의를 찾아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교육적 또는 기업조직 장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이나 직장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맥락에서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위가 보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대다수의 학교 또는 기업조직에서 습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상이나 처벌 또는 벌점 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촉진하려는 목표활동에 대한 학생들 또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 도움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도움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은 도움행동에 대한 몰입과 만족감을 낮추며,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고, 이후의 행동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tson, Coke, Jasnoski, & Hanson, 1978; Finkelstein et al., 2005; Weinstein & Ryan, 2010). 통제적 동기에 의해 실행되는 봉사활동이나 도움행동에서 바람직한 인성, 사회성과 시민성 발달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친사회적 행동 육성은 보상이나 처벌, 즉 통제적 동기에 의해 강제되기 보다는(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는 보상이나 점수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내면화과정이 필요하다(Weinstein & Ryan, 2010).

따라서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부모, 교육자들 또는 기업관리자들은 보상과 처벌의 회피 같은 외적 동기자원에 의존하거나,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식의 통제적인 언어의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Jang, 2008; Reeve, & Jang, 2006). 또한 친사회적 행동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제시 방안이 주목하여, 목표활동 대상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도움행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자율적 도움동기의 발현)하게 하고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의지를 활성화

화할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제시라는 자율성지지 접근을 통해 어떻게 자율적 도움동기가 촉진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자율적 도움동기가 촉진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도움행동의 의 고취와 긍정정서 경험이라는 정적 결과들을 도출해 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될 수 있겠다.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맥락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도움행동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합당한 근거를 비롯제적이며, 정보순화적인 언어로 제시함으로써 도움행동 참여의지 및 긍정정서 경험을 함양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성교육, 친사회적 행동 육성 및 도움행동의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 및 교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자율적 도움동기 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도움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기술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척도가 자기보고식 절차와 측정방법만을 의지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평가자를 통해 도움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했던 선행연구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지만(Gagné, 2003), 추후 연구에는 자기보고식 실험 절차 뿐만 아니라 공유된 방법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찰자가 참여된 평가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처치 직후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인해 본 연구는 근거제시에 의한 자율적 도움동기의 결과로 도움행동참여의지를 측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행동 참여(helping behavior or prosocial act)를 함께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연구 대상을 보

다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도움행동을 내면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의 다양화 및 세분화는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인하여 환경적 개입 및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따라 연구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자율적 도움동기에 의한 도움행동참여 의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전 선행연구들이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활성화를 설명하는 선행변인으로 인지발달, 이타적 정서의 발달 등에 주목해왔음을 인지하는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도움행동을 일으키는 선행변인에 관심을 두고 자율적 도움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걸음 확장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과 동시에 자기결정성 이론과 도움행동을 통합시켜 교육장면 및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연구의 범위를 다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짚어본다.

참고문헌

김동일, 김미옥 (2015). 한국의 나눔교육 실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기획포럼 자료. 53-99.

권주현, 박영신 (2013). 마음의 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3), 117-138.

박정희, 김민 (2007).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1), 85-103.

이시왕 (199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연 (1997). 중학생 자원봉사활동 실태분석: 중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sor, A., Vansteenkiste, M., & Kaplan, A. (2009). Identified versus introjected approach and introjected avoidance motivations in school and in sports: The limited benefits of self-worth striv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482-497.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 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0), 2045-2068.

Batson, C. D., Coke, J. S., Jasnosi, M. L., & Hanson, M. (1978). Buying kindness: Effects of an extrinsic incentive for helping on perceived altru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 86-91.

Batson, C. D., & Shaw, L. L.(1991). Evidence for altruism: Toward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2(2), 107-122.

Berkowitz, L. (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63-108.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1), 119-142.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 109-134.
- Deci, E. L., Schwartz, A. J., Sheinman, L., & Ryan, R. M. (1981). An instrument to assess adults' orientations toward control versus autonomy with children: Reflection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5), 642-659.
- Dovidio, J. F., Piliavin, J. A., Schroeder, D. A., & Penner, L. (2006). *The social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isenberg, N., & Fabes, R.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01-778). New York: John Wiley.
- Ekman, P. E., & Davidson, R. J. (1994). *The nature of emotion: Fundamental ques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Finkelstein, M. A., Penner, L. A., & Brannick, M. T. (2005). Motive, role identity, and prosocial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volunteer activ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3*(4), 403-418.
- Gagné, M.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6), 631-645.
- Grant, A. M., & Ashford, S. J. (2008). The dynamics of proactivity at work.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8*, 3-34.
- Grolnick, W. S., Benjet, C., Kurowski, C. O., & Apostoleris, N. H. (1997).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538-548.
- Grolnick, W. S., & Ryan, R. M. (1987).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90-898.
- Jang, H. (2008). Supporting students' motivation, engagement, and learning during and uninteresting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4), 798-811.
- Jang, H., Reeve, J., & Deci, E. L. (2010). Engaging students in learning activities: It is not autonomy support or structure but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3), 588-600.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44-661.
- Kohn, A. (1993). Why incentive plans canno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1*(5), 54-62.
- Koestner, R., Bernieri, F., & Zuckerman, M. (1992). Self-regulation and 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trait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1), 52-59.
- Krehbiel, L. E., & MacKay, K. (1988). Volunteer Work by Undergraduates. ERIC Digest.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68-84.
- Mussen, P., & Eisenberg-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WH Freeman.
- Nelson, S. K., Della Porta, M. D., Jacobs Bao, K., Lee, H. C., Choi, I., & Lyubomirsky, S. (2015). 'It's up to you': Experimentally manipulated autonomy support for prosocial behavior improves well-being in two cultures over six

- week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5), 463-476.
- Newman, F., Milton, C., & Stroud, S. (1985). Community service and higher education: obligations and opportunities. *American Association of Higher Education Bulletin*, 37(10), 9-13.
- Patrick, B. C., Skinner, E. A., & Connell, J. P. (1993).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781-791.
- Pavey, L., Greitemeyer, T., & Sparks, P. (2012). "I help because I want to, not because you tell me to" empathy increases autonomously motivated hel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81-689.
- Reeve, J., & Jang, H. (2006). What teachers say and do to support students' autonomy during a learning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209-218.
- Reeve, J., Jang, H., Carrell, D., Jeon, S., & Barch, J. (2004). Enhancing Students' Engagement by Increasing Teachers' Autonomy Support. *Motivation and Emotion*, 28(2), 147-169.
- Reeve, J., Jang, H., Hardre, P., & Omura, M. (2002). Providing a rationale in an autonomy-supportive way as a strategy to motivate others during an uninteresting activity. *Motivation and emotion*, 26(3), 183-207.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50-558.
- Ryan, R. M.,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86-586.
- Sobus, M. S. (1995). Mandating community servic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requiring prosocial behavior. *Law and Psychological Review*, 19, 153-182.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Vallerand, R. J., & Blsso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3), 599-620.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 Matos, L. (2005). Examining the motivational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and autonomy supportive versus internally controlling communication style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6(2), 483-50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244.

1 차원고접수 : 2017.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7. 07. 07.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The Motivation of Help, Willingness to Help, the Power of Providing a Rationale to Promote Positivity

Jiyeon Lee

Hyungshim Jang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otivational benefits of providing a rationale as a strategy to support ones, helping behavior. In this study, we tested find out if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help, and positive affect can be activated by introducing experimental research. We tested a motivation mediation mode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 model proposed that (1) having an externally provided rationale that would facilitate one's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perceived autonomy and perceived importance) and (2) The extent of the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ould, in turn, predict the willingness to help positive affect. Participants read on prosocial activity after either receiving a rationale or not receiving one. Participants received the rationale showed greater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help, and positive affect than did participants without the rationa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the hypothesized model such that presence of the rationale increased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help and positive affect.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a model of effect on providing a rationale(Jang, 2008). The discussion highlights the role that externally-provided rationales can promote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help and positive affect.

Key words : providing a rationale, autonomous help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help, positive affect